



이휘민

사람은 몰라도 노래는 안다 핫한 뮤지션 '그루비룸'

“이거 누구 비트야?” “그루비룸(그룹 이름)이요.”

지난해 3월 공개된 래퍼 오원 오바도스의 '시티'(City) 도입부에는 이런 내레이션이 흐른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루비룸(박규정 23·이휘민 23)은 힙합 뮤지션들 사이에서만 입소문을 탄 프로듀서 듀오였다.

그러나 1년여가 흐른 지금, 이들은 업계에서 가장 '핫'한 팀으로 위상이 변화했다.

지난 2015년 9월 개리의 '바람이나 좀 쐬'로 주목받더니 올해 4월 효린과 창모의 듀엣곡 '블루문', 지난달 1위를 휩쓴 헤이즈의 '널 너무 모르고' 등을 통해 차트 지분을 넓혀나갔다. 이달 YG엔터테인먼트에서 14년 만에 선보인 솔로 가수 원의 '해야 해'도 이들의 손에서 태어났다.

주류와 인디를 막론한 뮤지션들이 그루비룸의 곡을 받으려고 줄을 섰다는 얘기도 나온다. 작곡팀이지만 아이돌 같은 외모에 패션 감각도 갖춰 화보도 찍곤 한다.

최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카페에서 그루비룸의 박규정과 이휘민을 만났다. 옛된 얼굴의 두 청년은 “2013년 말부터 데모곡을 엄청 뿌렸다”며 “2014년부터 래퍼 형들을 한 명씩 알게 되면서 ‘애네 잘한다’고 칭찬받으며 네트워크가 쌓였다. DJ펍 킨에서 개리, 개코 형을 잇달아 소개받아 우리 음악을 들려주자 연결 고리가 계속 생겨났다. 그 덕에 2015년부터 우리 곡들이 점차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다. 정말 운이 좋았다”고 말했다.

포항 출신인 박규정과 인천 출신인 이휘민이 처음 만난 것은 2013년 1월 한 기획사에서이다. 이들이 인터넷에 올린 음악과 영상을 보고 기획사가 연락해왔다. 1년간 친하게 지낸 두 사람은 작곡팀을 만들었고 가수로 키우려는 회사와 방향이 맞지 않아 독립했다.

그루비룸이란 팀명은 “우리 그룹 이름 뭐라 하지”란 이휘민의 물음에 “발음 나는 대로 그루비룸 어때”라는 박규정의 아이디어로 정해졌다. 여기에 녹음 스튜디오를 연상시키는 ‘그루브가 있는 방’이란 뜻을 더했다.

지금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작업실이 있지만 둘은 처음 내방역 인근의 한 건물 지하에 작업실을 마련했다. 월세 30만 원에 바퀴벌레가 기어 다니다 습기에 옷이 젖을 정도로 열악한 곳이었다.

작곡 데뷔는 2015년 래퍼 유태의 '졸업' 앨범에 참여하면서다. 이후 다이나믹듀오, 박재범, 도기, 더블케이, 매드클라운, 스윙스, 치타 등 내로라하는 래퍼들의 러브콜이 이어졌다.

박규정은 개리의 '바람이나 좀 쐬'와 박재범의 '사실은', 다이나믹듀오의 '요즘 어때?'를 꼽으며 “저작권료로 살게 된 것은

개리·헤이즈·박재범 등 앨범 프로듀싱 저작권료 생각 안하고 커리어 쌓는 중 24일 미니앨범 '에브리웨어' 발표

작년 4월부터로 지금 마인드는 20대에는 저작권료 생각하지 말고 멋있는 커리어를 쌓자는 것”이라고 웃어보였다.

이들의 감성은 힙합에서 파생된 장르인 트랩과 뽕뽕을 비롯해 EDM 계열의 팝, R&B 등 트렌디하고 세련된 트랙을 만든다는 점이다. 여기에 대중성까지 겸비해 금성첨했다.

지난해 12월 자신들의 첫 싱글 '로열티'(Loyalty)를 발표한 이들은 24일 7곡이 수록된 미니앨범 '에브리웨어'(Everywhere)를 발표한다.

이휘민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이 많아서 앨범의 분위기를 통일하고 싶지 않았다”며 “트랩, 뽕뽕, 팝, R&B 등 여러 장르가 담겼고 다양한 아티스트가 피처링으로 참여했다. 우리의 명함 같은 앨범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음악 방향에 대해서도 확고한 소신이 있었다. 둘은 “가수는 색깔이 있어야 메리트가 있지만 프로듀서는 색깔이 강하면 특정 장르가 유행할 때만 반짝했다가 수명을 다한다”며 “미국에서도 유명 힙합, EDM 프로듀서들이 '핫'했다가 사라졌다. 우리 항상 '프레시'(Fresh)하고 싶다. 아직 해보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박규정

“현대극 복귀, 도심 촬영 행복”

tvN '크리미널마인드' 이준기



“최근에 사극을 많이 했는데 오랜만에 현대극이라 기대감이 큼니다. 한복을 입고 액션을 하면 동작이 커 보여서 멋있지만 현대극에서는 또 절제된 액션이 묘미잖아요. 더운 여름에 짧은 템포의 시원한 액션 보여드릴게요.”

오는 26일 첫 방송 하는 tvN의 첫 수목극 '크리미널마인드'에서 국가범죄정보국(NCI) 범죄행동분석팀의 김현준 요원을 연기할 배우 이준기(35)는 19일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사극을 자주 하다 보니 '박힌' 발성이 있어서 이번 작품 처음 할 때 조금 어색하기도 했는데 저도 어렸던 현대인이다 보니 금방 적응했다”며 “또 사극 찍을 때는 전국 팔도를 뛰어다녔는데 도심에서 촬영하니 행복하다”고 웃으며 덧붙였다.

그가 연기할 김현준은 범죄자의 행동 분석에 능한 최고의 현장 요원으로, 미모와 달리 '한 타프'하는 성격을 자랑한다.

이준기는 미국 드라마를 원작으로 둔 작품에 참여하게 된 데 대해 “저도 원작의 팬인데, 원작과 달리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설득시킬지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좋은 배우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저의 새로운 매력을 발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면서 “모두가 불확실함 속에 사는 사회에서 정의라는 것을 갈구하는 시대 아니냐”며 “저 역시도 그런 것에 관심이 많다. 선과 악의 대립에서 선이 이기고 정의가 실현될 때 정서적 위안을 얻고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그건 극적 부분의 감정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오는 26일 밤 10시 50분 첫 방송. /연합뉴스

KBS, 미니시리즈 극본 공모당선작 발표

우수작 3편 선정...보완 후 제작 추진

KBS는 미니시리즈 경력작가 대상 극본공모에서 우수작 3편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리블리 호라블리'(박민주), '공짜로 헤드업니다'(김순옥), '체포왕 가족'(강민선, 박성훈)이 우수작으로 선정됐으며, 각 수상자에게는 8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당선작은 향후 보완을 거쳐 미니시리즈 드라마로 제작 추진된다.

지난 4월 24~28일 진행된 공모에는 총 114편의 작품이 응모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훈장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KBS 뉴스	00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아티스타 스페셜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도전 50 UHD 한국의 유산	00 다큐멘터리 3일 (재)	30 시청자 TV	00 애니갤러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00 이름 없는 여자(재)	00 MBC 정오뉴스 20 왕은 사랑한다(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특 보형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꼬마농부라비			55 닥터 365
2	20 반지의 비밀일기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디큐 (재)	40 신비한TV 서프라이즈 스페셜 55 보글야 사랑해	00 뉴스브리핑
3	10 디큐 공감	00 자동차보행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별별머리(재)	
4	00 4시 뉴스집중	00 누가 누가 잘하나	00 MBC 뉴스M	00 여행배틀 로그인 코리아 (재) 55 지식 통조림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터닝매카드 W 2 30 주간연예수첩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10 다시 만난 세계 (재) 45 날씨와 생활 50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아라라라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이름 없는 여자	05 천년의 전라도 스페셜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1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24 55 속보뉴스TV 인사이트	55 별별머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KBS 스페셜 55 숨터	00 7일의 왕비	00 죽어야 사는 남자	00 다시 만난 세계
11	00 KBS 뉴스라인 40 UHD 문화기행 낭만 오디세이	10 해피 투게더	10 어서와 ~ 한국은 처음이지?	10 자기야 - 백년손님
12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50 MBC 뉴스 24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통일 미리보기 (워터네 요리대회)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레인보우 루비 07:30 뽕뽕뽕 뽕뽕 07:45 출동! 슈퍼웬스 08:00 당동당 유치원 1~2 08:30 똑딱맨 08:45 Why - 최고대 호기심딱지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주 09:15 엠마 까투리(재) 09:30 물랑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친절한 며느리의 슬픈 고백)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인절미 토스트와 수박에이드)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장수의 비밀 (준수 할머니의 아흔 번째 여름나기) 12:40 지식체널e 12:45 명의(재) 13:40 다큐영화 - 길 위의 인생 (필리핀 교도소 이완희 이야기) 14:30 호기심나라 오카도
15:00 그림을 그려요 15:05 두키 탐험대 15:20 마사와 골 15:35 모피와 친구들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6:15 허풍선이 과학쇼(재) 16:30 Why - 최고대! 호기심딱지(재) 16:45 당동당 유치원 1~2(재) 17:15 뽕뽕뽕 뽕뽕(재) 17:30 로보카 폴리 17:45 똑딱맨(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 1~4 19:00 사이언스 맥스 19:30 EBS 뉴스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20:50 세계테마기행 (우리 지금 만나 장기하의 캐나다 4부 나리케 겐자 빅토리아) 21:30 한국기행 (절벽과 계곡사이 4부 짜릿하게 오색하게) 21:50 과학 다큐 비온드 (웨어를 로로, 강하 인간을 꿈꾸다)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금강같은 내 새끼랑 24:05 지식체널e 24:10 스페이스 공감 1,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0일 (음 윤5월 27일 戊申)	
子	48년생 파악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면서 지연되는 판세이나라. 60년생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이가 보인다. 72년생 의지가 약하다면 재물이 나갈 수도 있다. 84년생 과잉 확신은 엄청난 오류를 낳기에 총분하다. 행운의 숫자 : 31, 09	午	42년생 진중할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4년생 일이 지난 후에는 후회해도 소용없다. 66년생 천재일우의 찬스다. 78년생 전래대로한 행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90년생 행하지 않아야 후회하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72, 31
丑	49년생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된다. 61년생 바빠 하려고 하면 할수록 실수가 잦아지는 법이다. 73년생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감정을 엄격히 구분하자. 85년생 나가는 것은 차치하고 들어오는 것에 신경 써라. 행운의 숫자 : 33, 25	未	43년생 과거의 인연이 현재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55년생 단순한 비교는 편견을 가지기에 총분하다. 67년생 공이 무너질까 두렵다. 79년생 자료보다는 제함에 의존함이 훨씬 나을 것이다. 91년생 하점은 속히 보완하자. 행운의 숫자 : 92, 95
寅	50년생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 62년생 기다 말고 다시 되돌아 올 수도 있겠다. 74년생 상대를 위하는 것이 결국 자신을 위하는 길이 되리라. 86년생 직접 찾아가서 깔끔하게 처리해야 명쾌하리라. 행운의 숫자 : 11, 51	申	44년생 파장이 일면서 총격을 받을 수도 있다. 56년생 재수가 있는 날이니 갈팡과 아이템을 잘 선택하여 기회를 잡아 보자. 68년생 총각을 다루어 실행해야 하느니라. 80년생 형식의 유형에 따른 차이가 크다. 행운의 숫자 : 73, 51
卯	51년생 형국에 영향을 줄만한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리라. 63년생 내면의 공고한 못지않게 외부적 표현 국면도 중요한 때이니 노출된 외관까지 신경 쓰자. 75년생 활로가 개척될 것이다. 87년생 생 계속 지켜보아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16, 31	酉	45년생 성과에 흠뻑 취해서 매우 즐거워하는 형상이 비친다. 57년생 정성에 비례한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69년생 낮추어 보다 가는 큰일나는 수가 있다. 81년생 궁극적인 목표점이 진입하기 시작한다. 행운의 숫자 : 96, 26
辰	52년생 신속 정확함을 요하는 국제시안만큼 빠른수록 능률적이다. 64년생 조금만 더 나아가면 안정권에 들어서게 된다. 76년생 행운이 다가오는 장면이다. 88년생 진정한 자선이란 희생이 따르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19, 91	戌	46년생 그 무엇보다도 실익을 우선시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명심해야 하느니라. 58년생 세밀한 중간 점검이 절실히 요망된다. 70년생 발전적인 논의를 한 끝에 결실을 이루는 판도이다. 82년생 전체의 입장을 우선 하자. 행운의 숫자 : 51, 18
巳	53년생 낙수물도 반박되면 땀을 흘리는 법이다. 65년생 과거의 행적과 연관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77년생 매우 비숫하여 혼동할 수도 있으니 앞뒤 분간을 잘 해야겠다. 89년생 여러 사람의 입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원만하다. 행운의 숫자 : 18, 80	亥	47년생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취약점을 발견할 수 있다. 59년생 마음고생이 심할 수 있는 날이다. 71년생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 제점이 보인다. 83년생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면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5, 77